

구례군 올해 전기자동차 82대 보급

승용 45대·화물차 37대 보조금 탄소중립·대기환경 개선 기대

구례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8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 82대 중 승용차는 45대, 화물차는 37대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군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33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 화물차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 택시 구매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차상위 이하 계층,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은 국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고,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차 구매

자가 계약하면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한다. 대상자는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들이 법조인 체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미래설계 직업체험...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료

40명 창의·융합 실무 중심 교육

순천시가 지난 14일까지 5주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래설계 LEVEL UP' 겨울방학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창의·융합 교육과 실무 중심의 직업 체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간호사·응급구조사 실습, 금융 직업 이해 등 14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다

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추가로 흥미·적성·가치관 3종으로 이루어진 진로 검사도 제공해 직업 성향 파악을 도왔다. 미래 사회에 발맞춘 디지털 새싹캠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도 마련됐다. 캠프에는 '인공지능 게임 만들기', '증강현실 보드 게임 제작' 등 과정이 포함됐다. 또한 자원봉사 소양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성 함양 활동도 진행되었으며, 립만 만들기, 커피박 키링 제작 등의 공예 체험과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구성됐다. 특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지원

이용 실적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여수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1월부터 2025년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061-665-3600, 3607)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

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쿠팡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청하세요"

28일 마감...최대 700만원 지원

곡성군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신청이 오는 28일 마감된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실내·외 시설개선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영업에 필요한 업소용 물품 구입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만족도가 특히 높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2025년 2월14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농업·임업 관련 업종, 최근 5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았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14일부터 28일까지이다. 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 대상별로 사업 완료가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업이 매출 감소로 시름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영유아 가정 95% '만족'

부모 양육 자신감도 90% 증가

광양시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임산부와 아이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밝혔다. 시는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는 생리적·사회적 변화, 임신·출산 가정은 기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의 경우 2년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임신 단계부터 출산·육아까지 불평등을 줄이고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여성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인내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지역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95%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모의 자기 효능감(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받은 한 출산모는 "첫째 아이라 육아가 두려웠는데 방문 서비스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둘째 출산 후에도 꼭 와 달라고 쓴 쪽지와 꽃을 간호사에 전했다. 이에 간호사는 "매일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항 광양시 출생보건의료과장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에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불법 도로점용 지도 단속 강화

고흥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정서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시

를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때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을 계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고 기간 내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흥=주국자 기자 gju@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